

도 자주 있다.

냉동고 안에서의 작업은 -40°C 라는 극한(極寒)보다도, 오히려 0°C 부근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온성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방한작업복으로는 작업자로 부터의 열방산이 커져, 보온능력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체온과 피부온도가 크게 저하되며, 산소소비량의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보온력이 떨어지는 작업복 착용은 작업자의 체온유지에 큰 영향을 주며, 작업장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30°C 부근의 수지피부온도가 25°C 를 밑돌게 되면 작업자가 냉기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건수가 많아지며 20°C 를 지나서 10°C 부근까지 저하되면 심한 통증을 나타낸다.

이 때 좌우손의 쥐는힘을 측정해 보면 두드러지게 근력저하가 나타나며 손가락의 민첩성에 대한 검사에서도 운동기능의 저하가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말초의 냉기는 단지 통증만 수반하

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의 운동기능에 까지 영향을 미쳐서, 작업능률을 저해하며 작업의 안전수행에 큰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된다.

신체의 중심부는 경험에 의해서도 자연히 보온성이 높은 방한복을 착용하여 한냉으로 부터 신체를 지키는데 신경을 쓰게 되지만, 손이나 발 등의 말초부에 이르면 한냉으로 부터의 고통을 얼마간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위로 부터 방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추위 냉기가 느껴질 때는 손을 비비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말초부위를 보온 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작업시간을 규제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작업의 지속성을 생각할 때, 작업자의 자각증상이 시작된 후 연속작업시간은 약 30분정도가 된다고 하며, 휴식을 취할 때는 급격한 난방상태로 들어가지 말고 서서히 덥혀가면서 휴식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진단정도관리를 위한 회의 개최

협회는 11. 30 건강진단에 대한 검사항목별 정도관리를 위해 학계 전문가와 분석실무책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정도관리기준 및 운영방안을 수립, 노동부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는 건강진단결과에 있어서 혈중, 요중 중금속 및 유기용제의 분석결과치 등이 의료기관별

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도관리가 시급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10. 26 직업병진단과 보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제 3 차 사무국장 회의 개최

'90 제 3 차 사무국장 회의가 11. 23 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금년도 사업실적 및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관계기관에 '89 연구용역결과 제출토록

협회 '89 학술조사연구 지원사업에 의한 연구

용역기간이 '90. 10. 30로 만료됨에 따라 용역을 의뢰했던 관계기관에 오는 12월말까지 연구결과서를 2부씩 제출해 주도록 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들은 협회 '90 연구논문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특히 동 조사단은 협회본부와 서울중앙센터 및 마산센타를 방문하고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산업보건사업의 추진과 관·민협조체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한·일기술협력사업은 수 년전 부터 협회에서 추진하여 오던 사업으로서 지난 2월 한국정부에서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제안, 노대통령의 방일시 양국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추진 중이며, 내년 2월경 2차조사단의 내한과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력사업은 91년 부터 5개년계획으로 실시되며 양국전문인의 교류및 공동연구, 연수생의 일본파견, 최신기장비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되어 산업보건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기술협력사업 기초조사단 내한

산업보건사업발전을 도모하는 한·일간 기술교류 및 기장비지원사업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초조사단이 90. 11. 14 내한하였다.

동 조사단은 일본 노동성의 青木계획과장, 後藤환경개선실장 등 관계관 4인과 JICA의 林과장등 5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5일 부터 10일간 과학기술처, 노동부, 당협회, 순천향대학,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정부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재해예방계획과 산업보건사업전반에

산업보건계 소식

☉ ... 경희의료원 건강관리과장 및 예방의학교수로 재임했던 구도서 박사가 1990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 최현림(崔賢林)과장이 9. 1일자로 새로 부임했다.

(약력)

- 서울의대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예방의학과 전문의
- 전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강사, 조교수
- 전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 연구소 연구원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1990. 5. 1)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강관리과 과장(1990. 9. 1)



☉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산업의학연구소(소장 : 홍대용)가 1990년 10월 16일자로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인가받음.

☉ ... 고신대학 의학부 예방의학교실 김용준 주임교수는 동남아지역 의료선교사업 시찰을 위해 10월 29일 출국하여 11월 17일 귀국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장 문영한박사(협회 인천지부장)가 11. 28 군산중·고등학교 재경동창회장에 취임됨.